



작가의 말

두 아들을 키우며 살다가 보니 문득 거울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루를 버티게 하는 책임감, 작은 것에도 따뜻함을 담던 손길까지... 저는 어느새 엄마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딸은 엄마의 인생을 닮은 걸까?"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김새도, 일상도, 가족을 향한 사랑도 닮아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엄마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랑과 감사, 존경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도 자신의 엄마를 떠올리는 작은 따뜻함이 되길 바랍니다.



딸은 엄마의 인생을 닮는 걸까 (우리 이제 그림책 작가 5)

발행일 2025. 11.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독서문화과
글·그림 박혜원
지도작가 고진이

[비매품]

* 이 책은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의 2025년 책동네산책 프로젝트 2기의 결과물로 민들레작은도서관 「그림책 창작동아리 우리 곁, 작가」 활동으로 만든 그림책입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전자책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ISBN 979-11-94496-76-2(PDF 전자책)

ISBN 979-11-94496-71-7(세트)



전자책 읽기



우리 이제 그림책 작가 5

딸은 엄마의 인생을 닮는 걸까?

글·그림  박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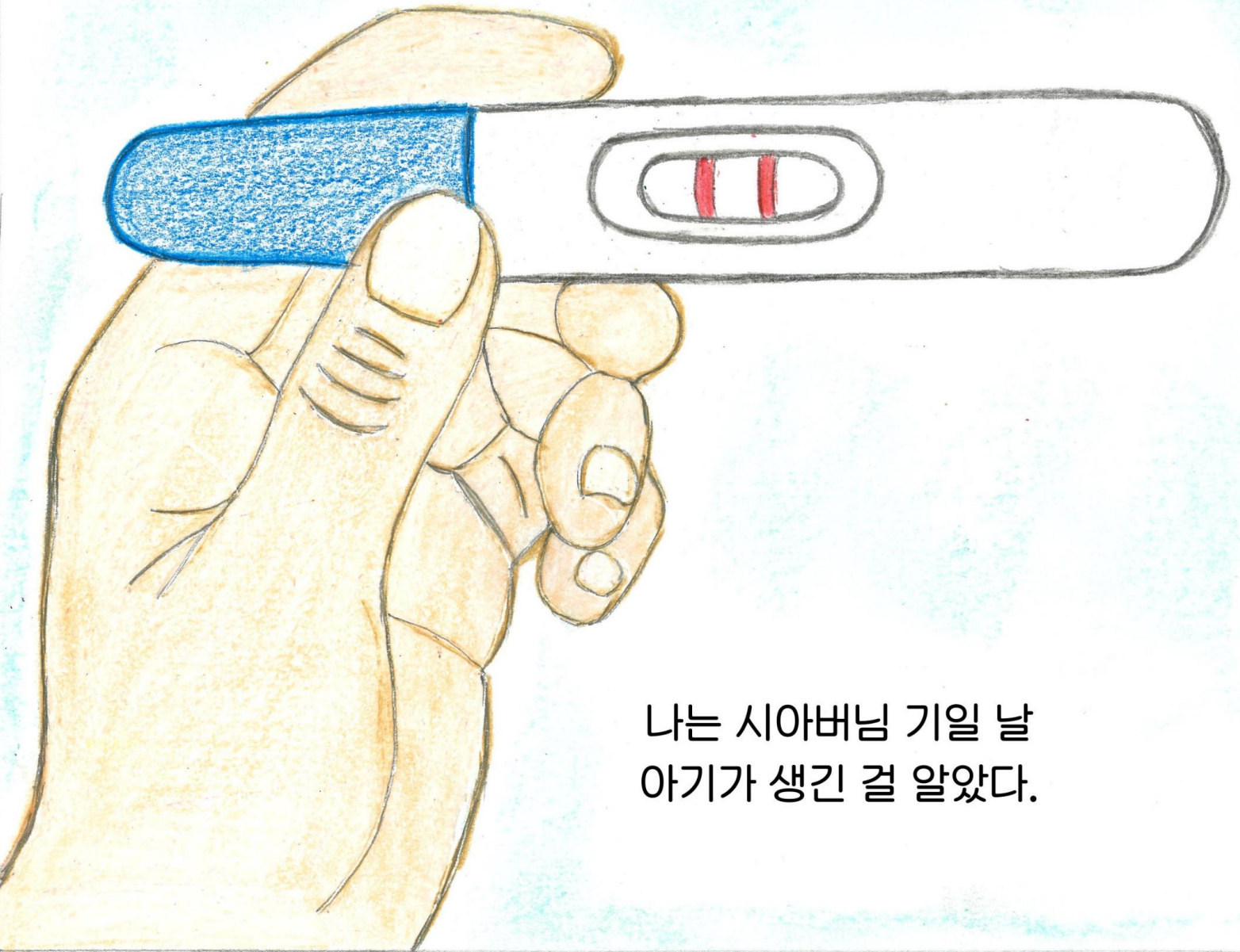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신트리도서관

"우리 딸이 엄마에게 와 준 날"



엄마는 근로자의 날
내가 생긴 걸 알았다.

"우리 아들이 나에게 와 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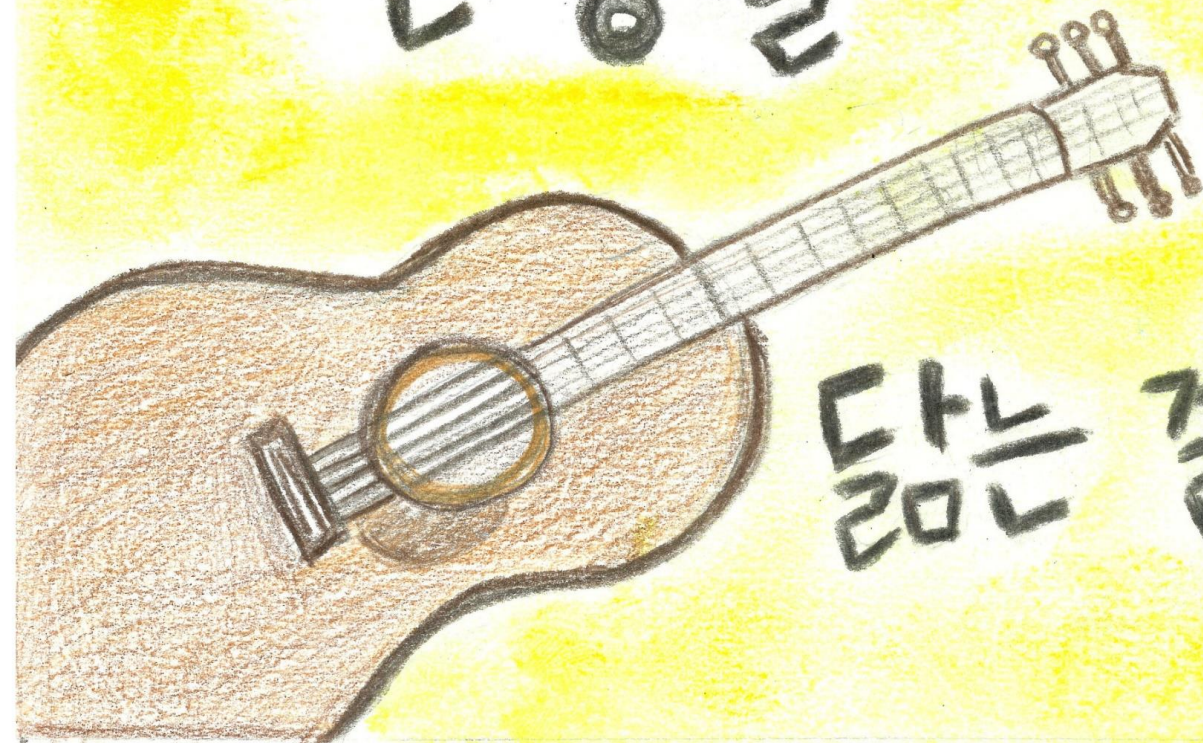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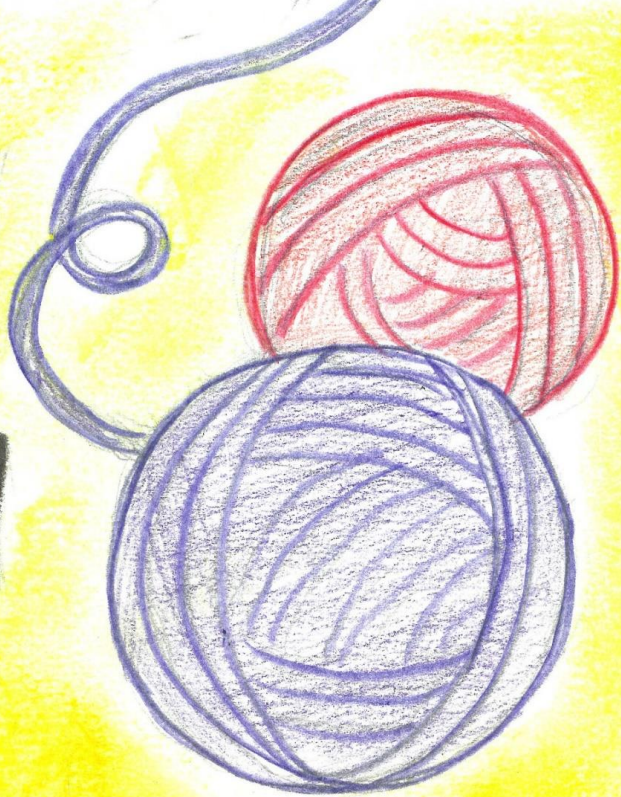


나는 시아버님 기일 날
아기가 생긴 걸 알았다.

따뜻한 엄마의
사랑

이 세상
엔

답은
결까?



가만히 나를 되돌아보니 엄마의 모습들이 겹쳐졌다.
우연히 첫 아이가 생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듯...
엄마와 내가 겹쳐지는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 ♪
♪

엄마의 노래



"잘 자라. 우리 아가
♪ 앞뜰과 뒷동산에~" ♪



나의 노래

엄마 딸의 놀이터

수빈이도 하나

"아~ 우리 딸 하나"

민우도 하나



내 아들의 놀이시간



엄마의 취미

엄마 뭐해?

우리딸
옷 만들지...



"하나, 둘, 셋, 넷..."

"여기 코가 바껴네... ㅠㅠ"

나의 취미



엄마 딸의 방



내 아들의 방





"아빠"

"아빠"

"아자!"

엄마의 운동



"하나, 둘, 하나, 둘..."



"짹"

"짹"

나의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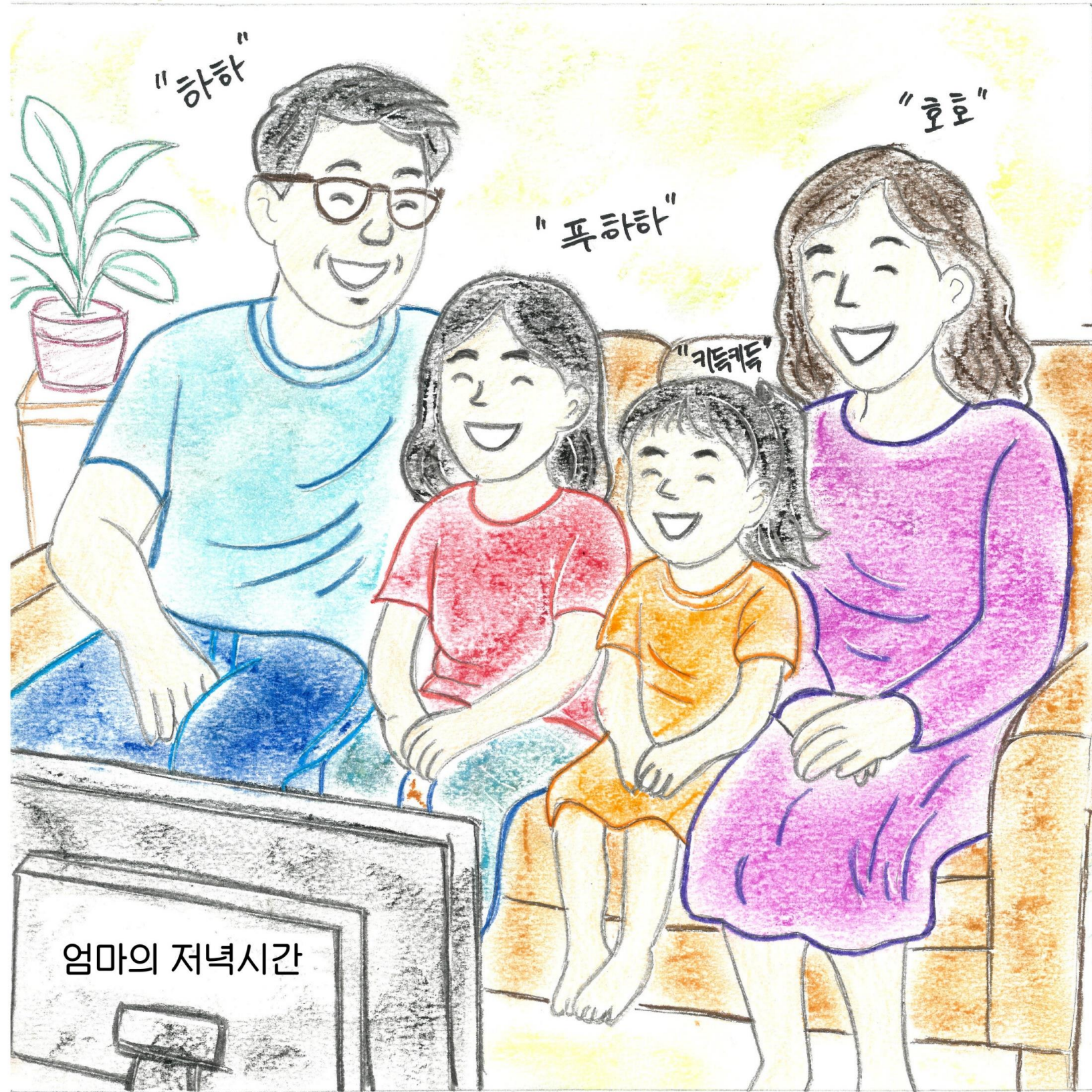
"하하"

"호호"

"푹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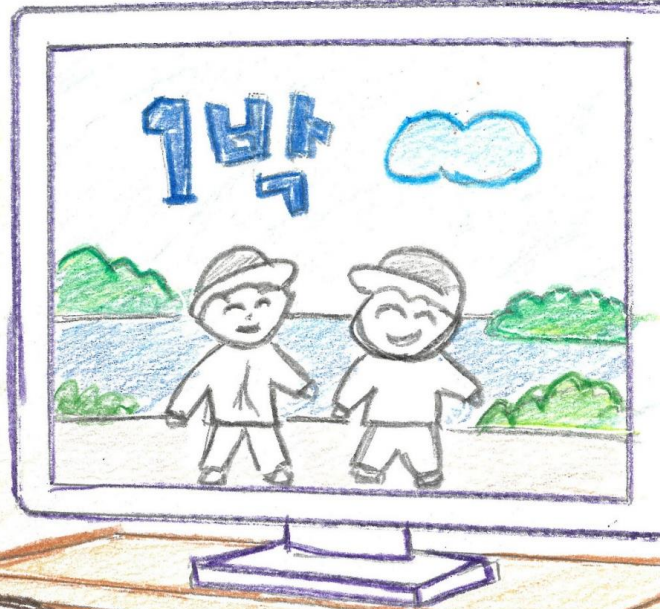
"킥킥"

엄마의 저녁시간



"하하"

"호호"



"ㅋㅋㅋ"

"갹갹갹"

나의 저녁시간

"너는 니 태도 때문에
더 혼난다고 했지?"

"나중에 너랑 똑같은 딸
낳아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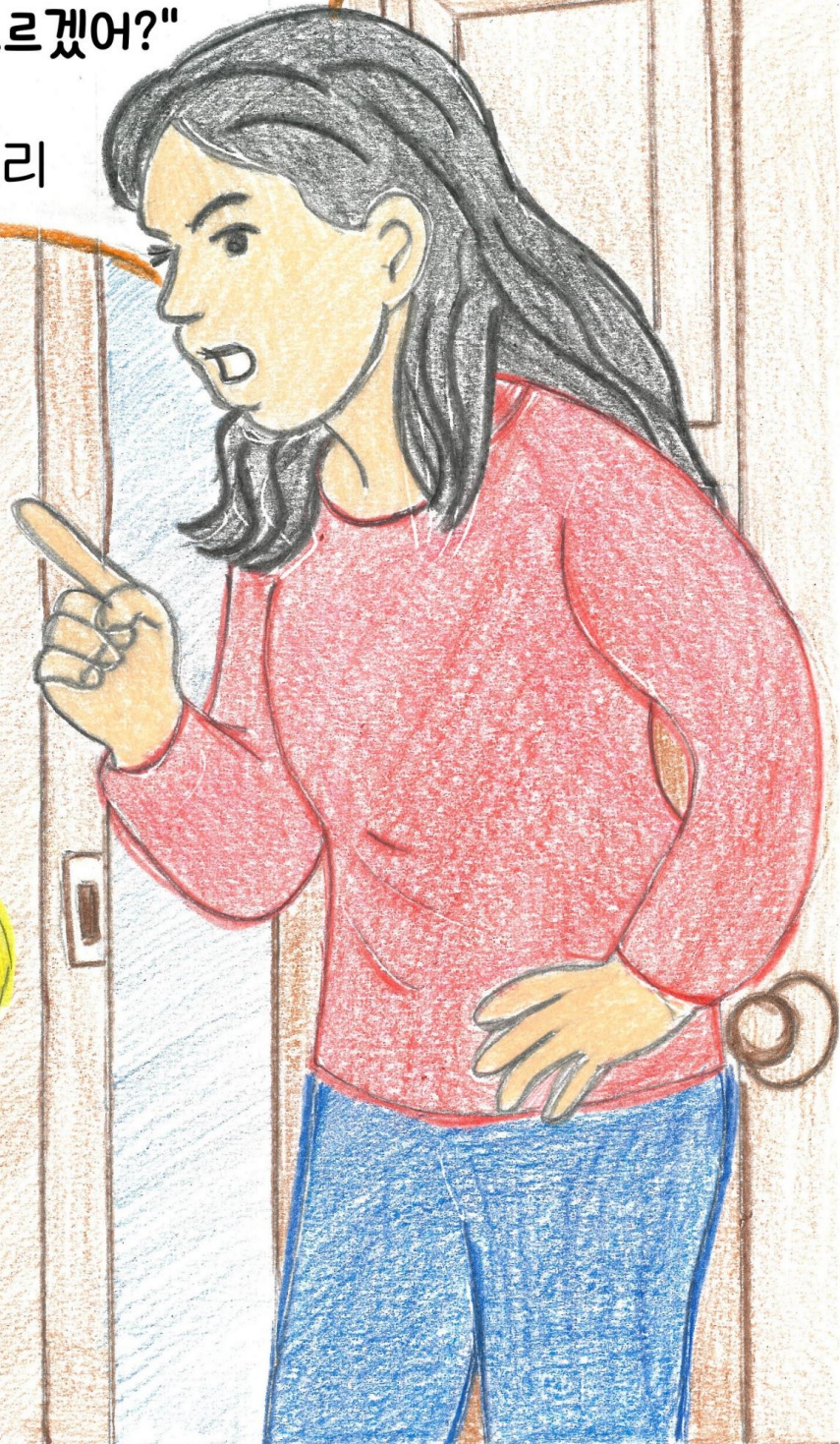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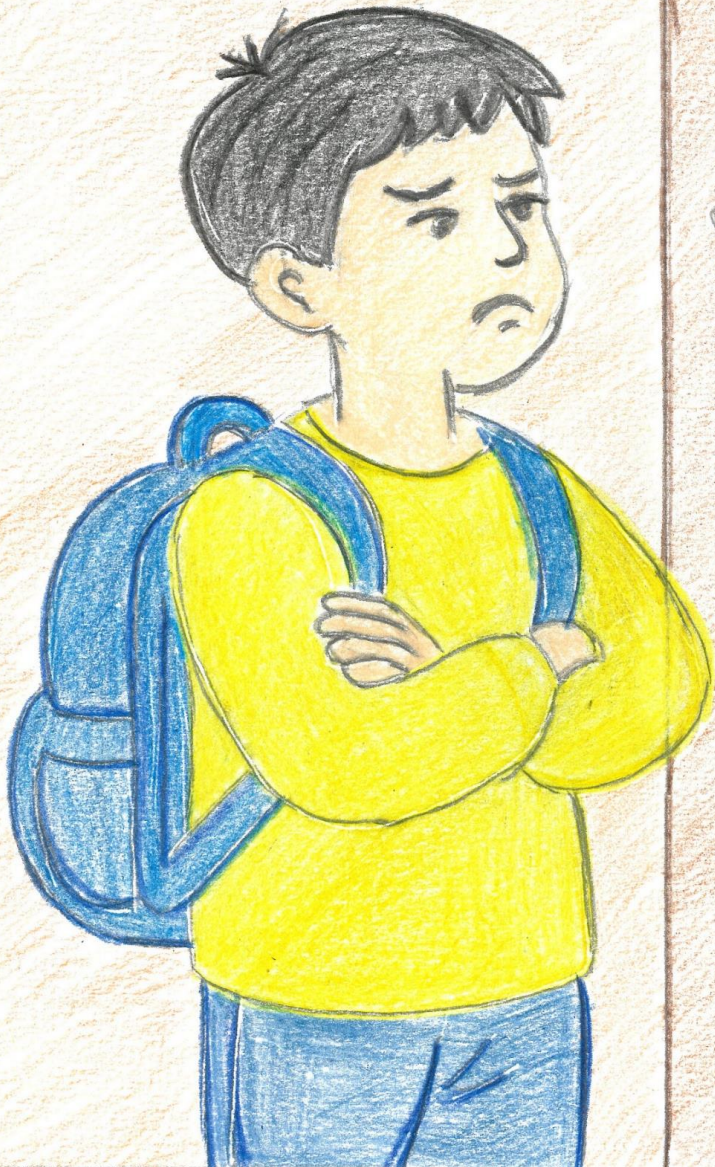
엄마의 잔소리



"엄마 말은 듣고 있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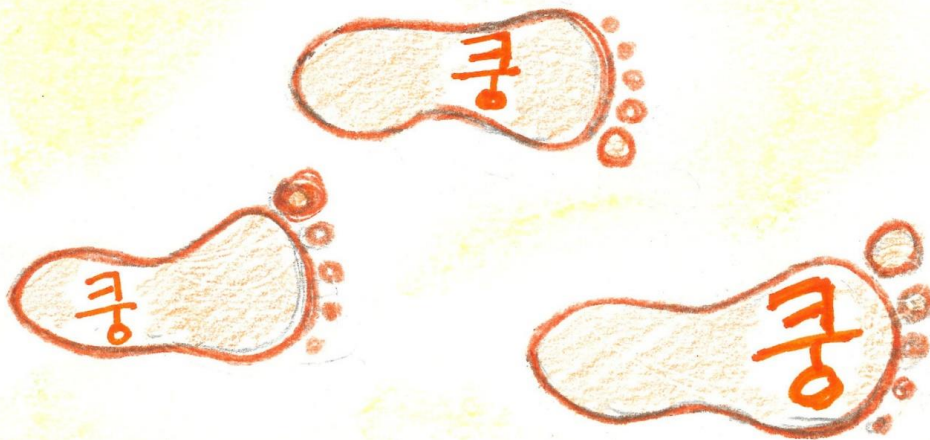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나의 잔소리



"왜 그래?"

자!
자!



엄마 딸의 말대꾸

"엄마!
엄마!"

"방 좀 치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아들의 말대꾸



“여기에서
하는게 좋아요~”

“책상 위 정리하고
책상에 앉아서 해요!”



"방 정리 좀 해!"

"아~ 또
매날 정리!
정리!
정리!"

"밥 먹어."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맛있다!"

"엄마~ 아까는...
...잘못했어요~"

"양양"

엄마와 딸의 화해방법



"응! 왜~"

"그래~ 차 조심히
잘 다녀와."



"엄마~ 아침에 죄송해요..
~...이래서 그랬어요.
사랑해요♡ 학원 다녀올게요~"



아들과 나의 화해방법



어느새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
생김새도, 일상도, 내 아이 / 내 가족에 대한 사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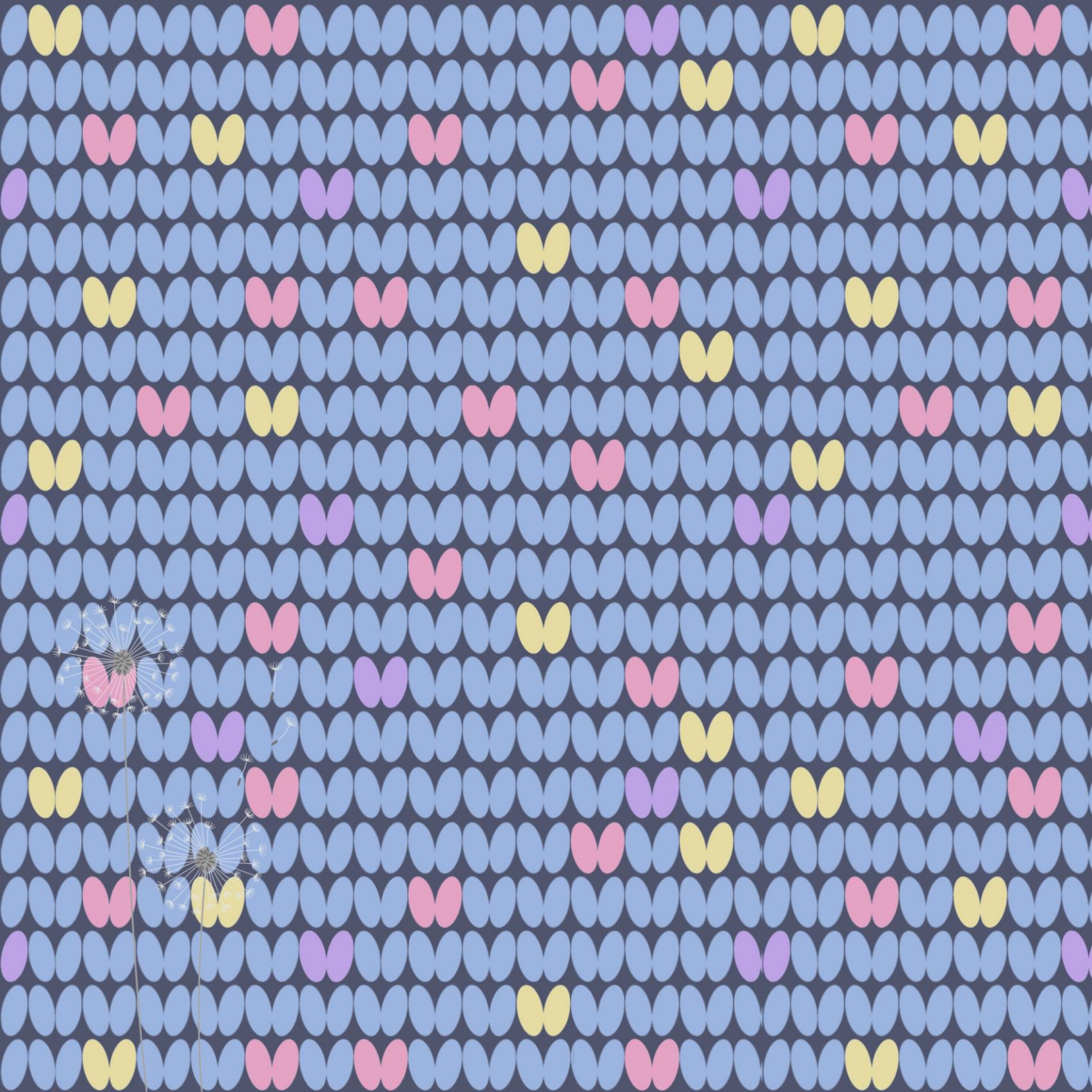
나의 모습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던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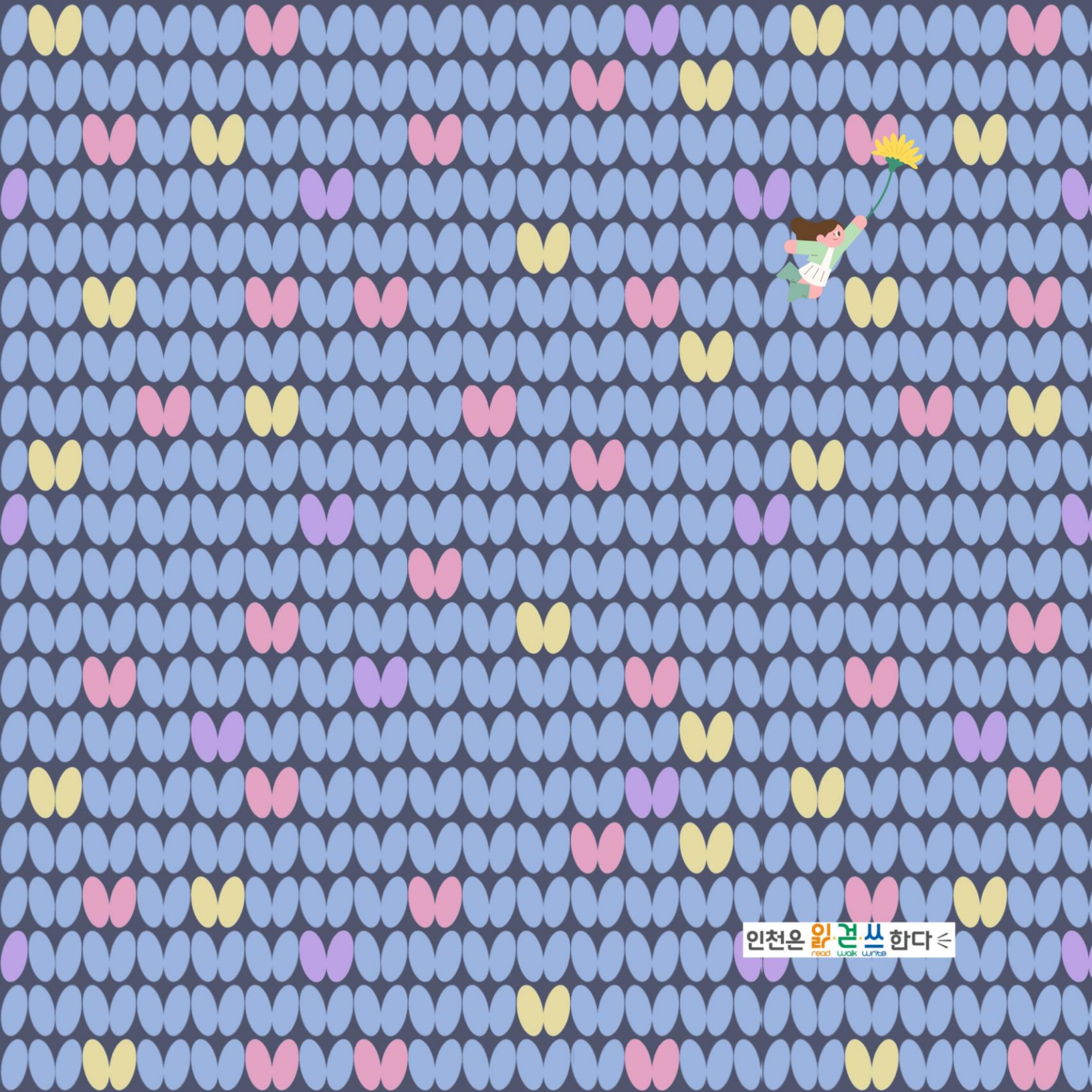


Dear _____









인천은 읽·걷·쓰한다 <=

read walk write



Dear _____



안전은 **읽** **고** **쓰** **는** **것**이다 <



전자책 읽기